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주요개혁신업

한국 교회 무엇을 갱신할까?

요한복음 17: 13 ~ 26

오늘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종교개혁 48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나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1.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1) 오직 말씀만(Sola Scriptura)

중세 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황, 교회에 절대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권위가 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오직 성경만. 이것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2) 오직 믿음만(Sola Fide)

중세 교회 교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을 지을 때 '헌금을 내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하고 나는 시간에 너의 조상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뛰어오르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뛰어오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만,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3) 오직 은혜만(Sola Gratia)

오직 은혜만(Sola Gratia), 이것은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종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린다'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큰 변혁을 요구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목소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48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 이런 길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기도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개혁할 것은 무엇인지, 갱신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 한국교회가 개혁하고 갱신 할 것

(1)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기쁨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예수님의 기쁨이며 예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기쁨입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권위가 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최종권위는 오직 성경만! 이것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2)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것: 거룩

'거룩'이란 말의 뜻은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로 구별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가치관을 달리 하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천만이 넘는 신자를 가졌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한국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항상 보편 타당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항상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항상 진리, 절대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4) 한국교회가 긴급히 해야 할 것: 선교

오늘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것은 진리이며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 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가야됩니다.

(5)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 연합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지향해야 할 것은 연합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연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갖게 되면 수평적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일을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6) 한국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 사랑

오늘 세상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 옆에 와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고 만졌다가 오히려 차가운 냉기만을 느껴서 뒤로 물러서듯이 교회에 사랑을 구하려 왔더니 오히려 차가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48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갱신하고 개혁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울교회, 한국교회, 민족교회가 되어 기쁨, 거룩, 진리, 선교, 연합,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년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접수 시작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생기를 공급한다-

도시교회의 포만기였던 농어촌 교회가 더 이상 새 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은 평균연령 75세의 노령사회의 양로원이 되어 비틀거리는 농어촌 지역 미자립 교회를 교회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기도와 물질로 돕는 운동이다. 전도위원회

에서는 2005년도 자매결연을 위한 후원자를 접수한다.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는 1구좌는 10만원이며(1/2구좌도 가능)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안식년 장로 재시무 · 부목사 연임투표 만장일치 당회통과

서울교회 당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스러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이루었다. 그동안 서울교회는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을, 장로는 4년 시무 후 1년을 안식년으로 제정하여 2000년부터 4회째 실시해오던 중 1년간 안식년을 거친 4대 장로 이영기 성준경 김명준 장로의 재시무 투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은혜스럽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날 부목사 연임투표도 한표의 반대도 없이 계속 시무를 허락하였다. 목사 장로 안식년제는 2000년도 월간조선 별책 단행본에 20세기 한국교회 10대 사건으로 선정된바 있다.

2004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영어부>
대상: 이이레(초등부) 금상: 김한기(초등부)
<교육1구>
대상: 김소연(초등부) 금상: 박연경(유년부)
은상: 이 인(유년부) 은상: 이 광(유년부)
동상: 박연준(유치부)
<교육2-5구>
대상: 김진달 금상: 노재균
은상: 이영숙 동상: 김대용

-본선 참가자 명단-

- <교육1구>
옥준용 옥유진 홍수빈 신화선(유아부) 박연준 이경현 주하빈 박지원 김민주 소성진 김형준 권도형 김지수 김행언(유치부) 이광 이인 박연경 김민선 강은경(유년부) 고윤석 이동호 이대훈 정호진 김소연 최은성 이이레 김환기 이명찬 전유태 김정수 최용석 한소린 김윤정 임혜란 임혜옥 김보은 이진영 이윤정 백연자 박지원 박은평 최소영 주은교 서세준 강혜진 김영옥(초등부)
<교육2-5구>
최인애 손영호(고등부) 노재균 이조은(대학부) 김이리(청년부) 안성희(장년1부) 손현순 안정배 김진달 김대용(장년부) 이영숙(사랑부)

2004 사명자 대회 연속기도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10월 29일 현재)

일시	요일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31	주일	주일예배																								
1	월	최중시 이양철 김미향 김영옥 윤영구	최중시 이양철 김미향 최규조 김영호	최막인 최형철 김찬진	최막인 민중현 이윤정 이지혁	최막인 나옥녀 최용렬 오홍래 유숙인 안성현 이남성	홍순복 머연숙 선경자 금용숙	이인순 이윤의 김경애 한연숙 임인자	오승민 이부자 송옥예	재오복 김현주 강정신	고경순 유영옥 여현진 최금자	김종자 민춘공 남순덕 안정원	이영의 9-14 오정수	박재숙 유 신 조상의 황노전 최정자 이남성 최영란	최정자 안영덕 9-15	민종우 황노전 박재숙	유신 조상의 최정자 황노전 9-1 9-5 9-6	유신 조상의 신선주 최정자 황노전 9-1 9-5 9-6	유신 조상의 최정자 황노전 서춘식 김진숙	이복규 안영순 진선자	유승순 진선자	서경애 김영희	노경신 김규태 박미애			
2	화	김대호 이영철 김미향 탁경준 전정숙	김대호 이영철 김미향 탁경준 전정숙	박정신 이영철 김미향 탁경준 전정숙	박정신 이영철 김미향 탁경준 전정숙	박정신 이남성 탁경준 전정숙	박우옥 김민 장효옥 이승희	김태기 문윤자 이부자 송옥예 서도다(박향)	이혜선 김은순 황정신	이혜선 유명희 고경준	김미애 이혜선	김은순 이영의	함정의 임명숙 이영의 이민화 장정화 조정옥	김영숙	박이신	신선주 박태규 송의숙 김정희 전아미	김익석 박이신 양인수 조원장 박천희	이경의 이강인 여숙	박정신 정의순	임윤규 정경자 곽숙 원복순 양영희 김광태 최희희	오영숙 김광민 박민숙 손태기 서경애	김영주 조철기 박영희 김규태 박미애				
3	수	새벽기도회																								
4	목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5	금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6	토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인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7	주일	주일예배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

다음은 지난 10월 25일(월),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 9회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을 요약, 정리한 기사이다.

인 설득 방법이다.

이종운 목사 설교의 로고스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간결함과 명료함이다. 이것은 지적 탁월의 상징이며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온 것이다. 그의 설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 원리에 입각해 있으며 이것은 지적 능력과 깊은 학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종운 목사는 예언자와 사도,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설교적 전통에 서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며 어떤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칼빈주의자 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칼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사학연구원과 한국기독교사학회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를 연구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교회의 이종운 목사를 대상으로 그의 설교와 신학에 대해 연구 발표하였다. 한국교회사학연구원장 민경배 박사(서울장신대학교 총장)는 순서에서 앞서 인사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연구는 한국교회의 강력한 힘의 근원을 밝히고, 동역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구성과 그 전개의 구도를 제시하여 한국교회 설교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정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발표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계의 석학들이신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인 서중석 박사, 서울장신대학교의 김세광 박사, 고신대학교의 이상규 박사, 그리고 논찬자로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인 문성모 박사가 수고하였다.

이종운 목사의 설교는 무엇보다 신학적 건실성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교회의 강해설교의 대가로서 그의 설교는 성숙과 갱신의 교회관과 신앙관으로 일관된 것이다. 기복주의적 설교, 비신학적인 설교, 혹은 윗기는 설교가 유행하는 현실에서 분명한 성경신학적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해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다.

1. 서중석 박사의 연구 발표

서중석 박사는 이종운 목사의 설교를 수사학적 으로 접근하여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는 서언에서 이종운 목사의 설교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은 신앙에서 나온 확신에 찬 설교이며 이종운 목사님을 칼빈에 비교하면서 칼빈이 그 시대에 설교로써 감당했던 일들을 오늘날 이종운 목사가 이루어가고 있다고 했다.

(1) 이종운 목사 설교의 에토스

에토스란 설교자와 관련된 감정이나 도덕적 품성, 그리고 역할 모형을 이용한 수사학이다. 이종운 목사는 그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또는 가차 없고 꾸밈없이 전한다는 에토스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나타난다. 그의 거침없는 권위와 명령형의 설교는 결코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설교 앞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한 학자적 예언자의 대안을 듣게 된다.

(2) 이종운 목사 설교의 파토스

파토스는 주로 청중의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여 그들의 의견을 바꾸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방법이다. 이종운 목사는 청중들을 향하여 항상 '신행일치'를 외친다. 그는 청중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돌이켜 신행일치의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설교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회개와 영적 각성'을 외친다. 치유와 위로의 설교가 주종을 이루는 오늘의 한국교회 강단에서 '심판'의 설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종운 목사는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종교개혁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외치는 것이다.



(3) 이종운 목사 설교의 로고스

에토스와 파토스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설득 방법이라면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

2. 김세광 박사의 연구 발표

김세광 박사는 이종운 목사의 설교를 자료와 주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성경을 성실하게 바라보면서, 성경에 철저히 봉사하는 이종운 목사의 설교는 이제껏 형통과 치유를 목표로 하였던 기존의 설교와 크게 구별 되면서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의 설교는 우선 본문 선정에 있어 구약과 신약을 매우 균형 있게 선정하여 치유점이 없이 성경 전체를 전하는 설교이다. 이종운 목사 설교의 두 축은 성경에 봉사하는 설교, 회개와 갱신이며 그는 용변가, 복음전도자, 목양자, 예언자로서의 설교이며 그의 설교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적 식견과 예언자적 통찰이 면면히 배어있다

그의 설교의 신학적 기초는 C. 반틸 신학의 전제이다. 반틸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변증과 신학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종운 목사는 설교 중에 가급적 개인 간증은 하지 않는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신행일치의 삶'이다. 이종운 목사는 비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 받으라'고 말할 것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한다.

3. 이상규 박사의 연구 발표

이상규 박사는 이종운 목사의 교회건설과 설교를 연구 발표하였다.

이종운 목사는 신학자이자 교수로, 또 목회자로 일하면서 가르치며 설교해 왔으나 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건설의 여정이었다. 그의 모든 사역은 개교회의 목회활동으로 제한될 수 없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곧 교회건설을 위한 봉사였다. 교회건설을 위한 그의 또 한 가지 기여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설립이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려는 그의 교회건설의 의지였고, 실제로 한국교회의 내적 일치를 이루는 연합운동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이종운 목사가 말로 명실상부한 '교회의 교사'라고 생각한다.

연구 발표가 끝난 후 논찬자로 나선 문성모 박사는 건실한 신학적 바탕에서 강력한 복음주의적 설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운 목사는 이를 그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며 그의 설교는,

이 - 이지적이고 학자적인 설교

중 - 종합론적이고 예언적인 설교

윤 -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생각되는데 세 분의 연구자들의 발표 역시 이와 동일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련의 연구 가운데 이종운 목사의 복음적 설교와 십자가 중심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견해가 다소 결여된 것과 한국교회의 강해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이종운 목사의 강해설교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며 이것은 다음번 과제로 남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논찬자는 기복과 치유와 위로의 설교만이 가득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강단에서 종합론적이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크나 큰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이종운 목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설교하는 이 시대의 칼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운 목사는 답사에서 자신은 고등학교 시절 자살한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던 중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노라고 했다. 이번 연구를 통보받고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자신의 설교에 상처나 뿔이 났다면 상처는 치료하고 뿔은 도려 내야된다는 심정으로 이번 연구를 검소히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번 연구 발표는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의 이사장이신 박옥선 목사의 서울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축도로 마쳤다.

글 : 허숙, 사진 : 유테서, 오주명(편집부)



2005년 서울교회 섬김위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3)

<p>위원회</p>	<p>당회서기: 김광신 기획위원회 위원장: 노문환 예배위원회 위원장: 최종시 찬양위원회 위원장: 임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완형 교구위원회 위원장: 김세재 전도위원회 위원장: 윤찬오</p>	<p>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구제위원회 위원장: 윤봉준 관리위원회 위원장: 임훈규 재정위원회 위원장: 오정수 건축위원회 위원장: 오정수 홍보위원회 위원장: 전기섭 (멀티미디어, 순례자, 출판) 동산위원회 사무국장</p>
<p>-기관-</p>	<p>장학회: 정병무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민순구 비전2020: 이갑진 상조회: 민순구, 유승순 차량관리: 조정식 예전부: 이관규 최광성, 여영숙</p>	<p>성경대학: 이완형 경로대학: 이재윤 주부대학: 신용식 상담실: 성준경 펠그림예술단: 홍성주 살렘권사회장: 김용숙 권사회장: 황정임 스테반회 간사: 오형철</p>
<p>-제직회-</p>	<p>서기: 최형렬 회계: 오정수</p>	<p>부서기: 정동호, 송인권 감사: 김영준, 김훈</p>
<p>-예배위-</p>	<p>예배안내1부장: 홍창배 2부장: 강석우, 김진환 3부장: 이광열 찬양: 김대홍 수요일부: 유기찬 수요일2부: 이종형</p>	<p>헌금 1부장: 서춘식 2부장: 우지원, 조성엽 3부장: 권장철, 이영조 계수 1부장: 홍일성 2부장: 송인권 3부장: 오형철</p>
<p>-차량관리부-</p>	<p>차량관리1부장: 정동학 2부장: 우상태, 김찬웅 3부장: 유근중</p>	<p>-식당관리부- 식당관리1부장: 이계홍 2부장: 류중관 3부장: 유을상</p>
<p>-70인전도대-</p>	<p>대장: 김금준 1차장: 주경자 3차장: 최규초</p>	<p>2차장: 박이선 4차장: 이인선</p>
<p>-교회학교-</p>	<p>교육1국장 최학인 유아부 부장: 최양혜 부감: 장양일, 박우옥 유년부 부장: 오광환 부감: 김복송, 김양숙 어린이오후예배부장: 양인수 부감: 최홍렬, 이현주 교육2국장 김대호 중등부 부장: 이태원 부감: 김광룡, 고정숙</p>	<p>유치부 부장: 최양진 부감: 이양철, 최영란 초등부 부장: 최학인 부감: 김시환, 김찬진 어린이수요일예배부장: 이승우 부감: 김규태, 임송자 고등부 부장: 김대호 부감: 양춘경, 윤갑숙</p>

	<p>교육3국장 홍성주 대학부 부장: 홍성주 부감: 김성준, 이은옥 신혼가정부 부장: 이학주 부감: 장두현, 오충례</p>	<p>청년부 부장: 최차순 부감: 홍일성, 김예환 디아스포라부 부장: 김상철 부감: 탁경준, 정연택</p>
	<p>교육4국장 이완형 사랑부 부장: 김현영 부감: 이강인, 이영숙 에바다부 부장: 안인호 부감: 최용걸, 이경희 새가족부 부장: 노문환 부감: 김중근, 김정희</p>	<p>요리문답 부장: 하인선 부감: 권장환, 박우주 영어예배부 부장: 이완형 부감: 김인수, 오영숙</p>
	<p>교육5국장 박정선 장년1부(30대) 부장: 황정옥 부감: 이찬호, 임분도 장년3부(50대) 부장: 김영주 부감: 오유식, 김혜영 장년5부(70대) 부장: 이재운 부감: 이남성, 박춘자 신앙강좌 2부 부장: 손태기 부감: 김은태, 전정숙</p>	<p>장년2부(40대) 부장: 이번생 부감: 이동권, 주경자 장년4부(60대) 부장: 이상호 부감: 박정수, 이윤희 신앙강좌 1부 부장: 윤운식 부감: 임옥균, 이신정 찬양대 양성반 부장: 박정선 부감: 김규태, 박태희</p>
<p>-찬양대-</p>	<p>가브리엘 대장: 임상헌 부대장: 윤성남, 김명옥 지휘: 최동규 반주: 강민정, 양경실</p>	<p>할렐루야 대장: 김광신 부대장: 이제원, 김인숙 지휘: 이영조 반주: 오자경, 안진희</p>
	<p>임마누엘 대장: 신용식 부대장: 백수남, 박윤희 지휘: 고성진 반주: 이성심, 백송희</p>	<p>베들레헴 대장: 정병무 부대장: 김형택 지휘: 임훈규 반주: 오신옥, 안진선</p>
	<p>호산나 대장: 황정임 부대장: 심화숙 지휘: 서희숙 반주: 홍혜란</p>	<p>시온 대장: 이복규 부대장: 오승민, 허숙 지휘: 김미진 반주: 김지현</p>
	<p>은빛 대장: 박두영 부대장: 원복순 지휘: 김미진 반주: 홍혜란, 양경실 필그림중창단 대장: 손병석 영어예배 찬양대장: 김훈 지휘: 김문영 예비 지휘자: 박경자, 서경학</p>	<p>글로리아 대장: 서희숙 아멘관현악단 대장: 정인주 갈렘찬양 대장: 민순구 부대장: 엄금순 그레이트핸드벨대장: 이동만 부대장: 이영옥 예비 오르가니스트: 김예미</p>

-교구위원회-

<p>1교구 교구장: 박두영 간사: 윤명구 이인숙안미경</p>	<p>2교구 교구장: 이복규 간사: 한충현 이윤희</p>	<p>3교구 교구장: 정병무 간사: 이경구 김유경</p>
<p>4교구 교구장: 임훈규 간사: 김금준 박미혜</p>	<p>5교구 교구장: 성준경 간사: 이학명 남옥진</p>	<p>6교구 교구장: 김세재 간사: 박정인 윤숙희</p>
<p>7교구 교구장: 이영기 간사: 김종윤, 한성옥</p>	<p>8교구 교구장: 홍성주 간사: 장낙훈 김정운</p>	<p>9교구 교구장: 윤봉준 간사: 유신, 박재숙</p>
<p>10교구 교구장: 이관규 간사: 김재근, 박연순</p>	<p>11교구 교구장: 노문환 간사: 오치열, 김양숙</p>	<p>12교구 교구장: 김광신 간사: 최광성 위성남</p>
<p>13교구 교구장: 조정식 간사: 조동완 이순희 김인숙</p>		<p>14교구 교구장: 신용식 간사: 한광마 김진희</p>

2005년에 영어예배부 신설한다

2005년 2월 첫주에 개최예배 드려

항상 복음의 영역 확장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2005년부터 현재 성경공부의 형식으로 진행 해오던 '영어성경반'을 '영어예배부'로 확장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예배를 2005년 2월 첫주 11시 20분(매주일 II부 예배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Arthur Kinsler 목사(PCUSA 선교사, 핏튼대, 프린스턴신학원, 연세대에서 수학)를 담임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외국인이나 영어 예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참여를 바란다.

조남해 선교사 파송한다

-방글라데시-

조남해 선교사는 방글라데시 자비랑 선교사로 1999년 6월 비자를 위해 이웃사랑회(NGO)와 연관을 맺고 빈민가에서 Baby care center를 운영하고 최초 한인 선교사였던 정성근 선교사가 세운 베들레헴 교회 주일학교를 담임하고 있으며 모슬렘 국가의 가족제도의 폐해로 태어난 사생아들에게 전도의 방편으로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코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조 선교사는 1958년 생으로 남편 이인희 전도사(육군 소령 전역)와 사별한 후 슬하에 1남1녀가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사역하고 있던 중 지난 번 서울교회 4기 단기선교팀과 연관이 되어 우리교회가 후원을 하기로 하였다.

천국일꾼 양성

주의 종으로 바치오니...

얼마 전 미주 한인 교계에서 훈훈한 감동의 뉴스가 전해왔다. 한인 최초 청각장애 형제 목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으로 그 주인공은 강주해, 강철해 목사 형제다. 이들은 우리교회 강중심 집사 전인화 권사 가정의 자녀들로 강철해 목사는 지난 9월7



▲ 강철해 목사 안수식 후 함께 기념하는 강중심 집사 전인화 권사 가족 (사진: 한국일보)

일 미국 LA 나성 천문교회에서 미주장로교단 최초의 청각장애인 목사로 안수 받았고, 강주해 목사는 1986년 한국 최초의 청각장애인 목사로 안수 받아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잭슨빌 농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중이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자라나기까지 그 뒤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전인화 권사의 평생에 걸친 눈물과 기도의 헌신이 있었다.

전인화 권사님은 내 자녀들이 특이체질임을 모르고 홍역예방 주사를 맞아 후천적으로 3명이 농아가 되고 한명은 난청이 되고 말았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를 하던 권사님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오니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고 성장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하며 자녀를 교육시켜 지금은 너무나 말을 잘해 옆에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농아인 것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강주해 목사는 고2때 누가 장차 희망을 묻는데 그의 입

에서 당시 그가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목사가 되겠다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고 교사라고 말을 바꾸려고 해도 입이 딱 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에 입학하여 4년간 들리지 않는 강의를 옆 친구의 노트를 베껴가며

공부하였고 세계유일의 워싱턴 DC의 갈로데 농야학교에 진학, 그리고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1982 한국 영락농아인교회에서 시무하며 여러 권의 저서도 썼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잭슨빌에서 농아인 교회를 섬기며 미국 농야를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철해 목사는 미국에서 수학하였고 마침내 지난 9월에 목사로 안수 받았다. 한 가정에서 그것도 4형제 중 두 명이 청각 장애인 목사로 안수 받은 이 큰 은혜의 상급은 바로 부모된 강중심 집사와 전인화 권사의 헌신적 희생과 끊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강철해 목사가 안수 받던 날 어든에 가까운 어머니는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유테서(편집부)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권문용(오른)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Arthur D. Little 연구소 경영석사
- 서울시 강남구청장(초대,2,3,4대, 민선)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소진선(오른)



- 한양대학교 졸업
-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졸업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강민정(오르간)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독일 Detmold극립음악대학원(디플롬)
- 현 나사렛 대학 겸임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 서울장신대 출강
-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최미선(오른)



- 성신여대 졸업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동정

- 주간식당 봉사: 한나 여전도회(10월31) 댕회원(11월7일)
- 금주의 식사: 손태기 집사 박우욱 권사 가정
김찬용 집사 황계연 권사 가정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B(코리안 위성방송) 제3채널(목동지 역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 14-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I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I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2004 사명자대회 8대기도제목 성취되도록
-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 3 피택집사·권사들의 영성과 임직식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세백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